



2018년 12월 20일 힐러리 한 베이비 콘서트



1

1 신영체임버홀
2 파올로 타발리오네 공연 포스터
3 임지영 공연 포스터
4 2018년 11월 28일 선우예권 공연



4

신영체임버홀 여의도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발돋움

힐러리 한, 당 타이 손, 백혜선, 레이 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 선우예권, 노부스 콰르텟, 김다미, 조진주... 클래식 공연을 접해본 이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이름이다. 이들이 지난 1년여간 신영체임버홀을 거쳐 간 주인공들이다.

신영증권은 2018년 5월 여의도 본사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증권사 객장이 있던 자리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소규모 클래식 공연장 신영체임버홀이 문을 열었고, 대형서점과 카페 등도 들어서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한복판에 산뜻한 문화예술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신영증권은 고객들을 위한 예술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신영체임버홀을 만들었다. 2010년 시작한

고객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신영컬처클래스'가 신영증권만의 소통 방식으로 정착해 고객에게 품격 있는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신영증권은 매달 서울 곳곳의 공연장에서 신영컬처클래스를 진행하며 쌓인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즐겨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됐다.

신영체임버홀은 개관 후 월 2회 클래식 기획공연을 진행해 고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여의도 직장인에게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영증권이라는 브랜드가 클래식 마니아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는 귀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영체임버홀의 내부 구조는 설계 단계부터 고심을 거듭해 국내 최고의 음향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최고를 지

향한다. 공연장 구조는 사다리꼴 형태로 클래식 악기의 좋은 울림을 고려했고, 가변형 벽면은 울림의 정도를 조절해준다. 또 세계적인 브랜드 메이어 사운드 사(社)의 스피커는 음악 공연에 필요한 다양한 음향 세팅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됐다. 240인치 풀 HD LED 스크린은 무대를 시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독일 토넷 사(社)의 맞춤 제작 의자는 관객이 오랜 시간 앉아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밖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스타인웨이 앤드 선스(Steinway & Sons) 피아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김대진 교수가 직접 청음해 선택했다. 이 피아노는 지금까지 다녀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품격 있는 음색을 자랑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신영증권은 문화예술계의 협업과 후원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자 노력했고 당사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 바로 신영체임버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문화예술로 고객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신영체임버홀은 첼리스트 양성원,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텔 리, 임지영, 플루티스트 파올로 타발리오네, 앙상블 클럽 M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연주자들의 기획 공연으로 화려하고 내실 있는 2020년을 시작한다. 대관도 활성화해 더 다양한 공연 콘텐츠로 관객을 찾아갈 계획이다. ●